

대입전형, 수시 4개 정시 2개로 간소화 추진

학생·학부모 '환영' 속 시행과정 '혼란' 우려

교과부, 인수위에 보고

복잡한 대입입시제도가 수험생·학부모를 탈진시킨다는 지적(광주일보 1월14일자 6면)이 잇따르자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대입 전형을 수시 4개, 정시 2개 등 총 6개의 전형으로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수시 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보는 학생부 진전형 ▲논술로 당락을 결정하는 논술전형 ▲학생부에서 교내의 활동 등 비교과 영역도 두루 보는 입학사정관전형 ▲실기와 학생부를 함께 보는

실기 전형 등 크게 4개의 전형으로 단
순해지고, 정시 모집은 ▲수능 전형
▲실기전형 등 2개로 압축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이는 일반 수험생의 경우 사실상 학생부, 논술, 수능 중 하나로 입시를 치르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고 공약해 이의 시행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교과부는 또 대학마다 지원서가 달라 중복 지원할 때 전형료 부담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처럼 원서 1장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개발 안도 설명했다.

이같은 간소화 방안에 대해 지역 교육계와 학생·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시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우려했다.

남정연(정광고) 광주진학부장협의회 회장은 “전형이 간소해지면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크게 줄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전기가 될 것 같다”며 “일반고는 학생부 전형을, 사사고·특목고는 입학사정관을,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은 논술을 목표로 잘 준비하면 대학 진학의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 회장은 “다만 주요 대학들이 순수에서 학생부 전형만으로 선발하는 게 아닌 학생부+ α 를 요구한다면 제도 정착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광재(숙덕고) 광주시진학지원단
 팀장은 “전형을 간소화하면 학생은
 수능 준비가 쉬워지고, 학부모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교육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서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고 있어 실

효성은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동구에 사는 학부모 박모(50)씨는 “정시 모집에서 내신을 배제하고 수능 시험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획기적”이라며 “하지만 내신 성적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지방 출신 수험생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해 수도권 주요대학의 입시 문을 좁힐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교과부는 주요 사립대 입학
처장과 진학교사들의 반대로 촉발된
'선택형 수능' 시행 유보 논란에 대해
서는 수능제도의 신뢰성 훼손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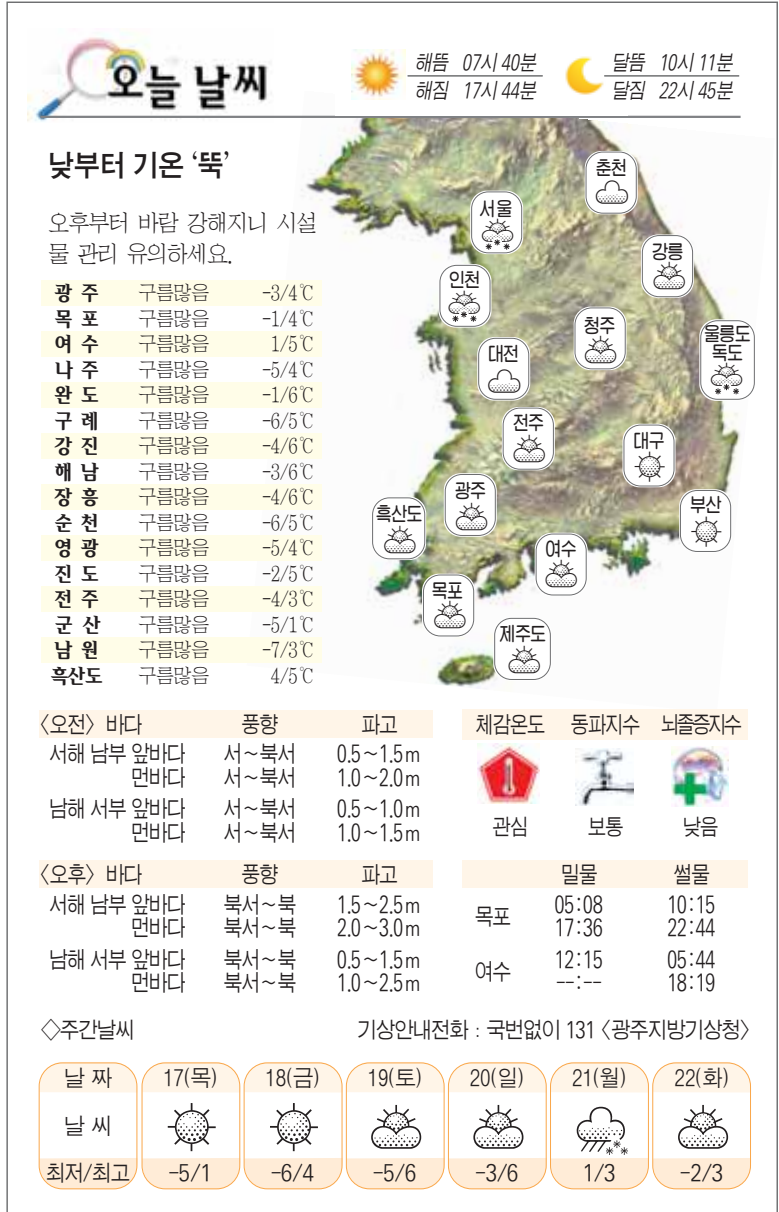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겨울 나비와 여인

15일 공양지역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올라가 포근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함평군 농
에서 먼저 깨어난 나비들이 채 피지도 않은 꽃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용객 급감 관리 부실 흉물 전략

광주 도심 육교 단계적 철거한다

19일부터 오치 한전 앞 등 76곳 철거공사

광주지역 육교 이용객이 크게 줄고 관리도 안 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데다 노약자 등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광주일보 2012년 9월 17일자 7면 보도)에 광주시가 단계적으로 육교를 철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오는 19일 복구 오치 한 전 앞과 용봉동 대신파크 앞 육교철거를 시작으로, 나머지 육교 76개도 점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육교 철거공사는 주민안전과 출퇴근길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9일 밤 10시부터 야간작업으로 진행된다. 1994년 설치된 이들 육교는 그동안 주민들의 철거민원이

잇따른 곳으로, 특히 고령자들의 무단통행이 이어지면서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경찰, 북구청, 도로교통공단, 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철거를 결정했다.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신호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지난 2009년 운암 3단지 앞 육교 철거를 시작으로 산수육교와 지원초교 육교 등을 철거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나머지 76개의 육교도 철거할 방침이다.

광주에는 북구 운암동 무지개다리를 포함한 모두 76개소의 보도육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노령인구가 많은 구도심인 동구와 북구에만 각각 6개와 17개가 설치돼 있다. 동구와 북구에 설치된 23개의 육교 가운데 설치된 지 30년 이상 된 육교가 3개, 20년 이 넘는 것은 5개, 10년 이상 된 것은 15개다.

시 관계자는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육교를 순차적으로 철거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교통약자 이동권의 증진계획’이 시행되는 오는 2015년부터는 육교철거 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대관령 눈꽃축제 스페셜 올림픽 경기장 출발일 2월4일(월) 06:00경 출발(당일) 여행비 65,000원 포함사항 :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여행지보험료 불 포 함 : 식사비	정동진일출 대관령 눈꽃축제 스페셜 올림픽 경기장 출발일 2월1일~2일(금) 22:00경 광주역출발(무박2일) 여행비 85,000원 포함사항 :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여행지보험료, 저녁 도시락 불 포 함 : 식사비	태백산 눈꽃축제 석탄박물관 황지연못 출발일 2월1일~2일(금) 22:00경 광주역출발(무박2일) 여행비 85,000원 포함사항 : 무궁화호 왕복열차비, 버스비, 여행지보험료, 조식 1회 불 포 함 : 식사비
			
	                